

5G 가입자 1200만명 시대... 중저가 요금 경쟁 불 지폈다

가입자 전월 91만명 보다 8.4% ↑
‘아이폰12’ 가입자 증가세 기폭제
이통사 마케팅 경쟁 치열해질 듯

지난해 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1185만명을 기록했다. 아이폰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출시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가 최근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성장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를 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85만1373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91만910명과 비교해 8.4% 늘어난 수치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은 547만6055명, KT 361만7471명, LG유플러스 275만1942명 순이다.

올해는 5G 대중화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된 갤럭시 S21시리즈와 본인의 휴대폰을 비교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내 5G 가입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 조기 출시와 통신업계의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으로 인해 5G 가입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는 지난 29일 전 세계 60개국에 공식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시리즈 일부 모델의 사전 개통 물량이 부족해 예약자 대상 개통 기간을 기존 28일에서 내달 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사는 갤럭시S21에 이례적으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새해부터 자사 온라인 전용 상품 ‘5G 다이렉트 요금제’로 중저가 요금제 2종을 선보였다. ‘5G 다이렉트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물 유샵(U+Sho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결합·약정 조건 등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요금제의 부가 서비스를 견어내고, 가격은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5G 다이렉트 37.5’은 월 3만

7500원(이하 부가세포함)에 5G 데이터 12GB(소진 시 1Mbps 속도)를 제공해 월 3만원대 5G 이동통신 요금제도 포함됐다. 앞서 SK텔레콤 또한 월 3만원대 5G 요금제가 포함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엔택트 플랜’을 출시한 바 있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911만1285명으로, 전월(899만90447명)보다 11만1838명 늘어나 900만명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세는 비싼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안으로 자급제 단말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일반 유통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편의점 등의 일반 유통매장에서 유심(USIM)을 산 후 단말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에이런’ 폐수 재활용 기술 “해외 첫 납품”

SK이노베이션 지원 친환경 소설벤처
폐수 재처리하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
해외서 경제·환경적 가치 우수 평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친환경 소설벤처 ‘에이런(Arun)’이 높은 폐수 재처리 기술력을 해외에서 주목 받았다.

에이런은 지난 31일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폐수 여과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를 재처리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이런은 수처리용 여과 장비인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NCF S)’ 시험용 설비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지역에 첫 납품했다.

에이런은 폐수 처리 기술을 통한 오



에이런이 개발한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염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설비 유지를 가능하게 해 해외에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을 평가 받았다.

에이런과 미국 ‘에스엘디 마케팅’은

지난 25일 미국 텍사스, 아칸소,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 5개주에 대해 50만불 규모 독점영업계약을 체결했다. 에이런은 에스엘디 마케팅을 통해 텍사스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에 시험용 설비를 납품했다. 이 설비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시험 운영을 거쳐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에이런은 캐나다의 미생물 처리시스템 개발회사인 ‘오솔노’와 공동기술협약도 체결했다. 이 설비는 ▲고농도(500ppm 이상) 미세 입자(0.5 μm) 제거 및 혼탁한 폐수 처리의 획기적 개선 ▲막힘 현상 없이 연속 가능한 필터링 ▲별도 세척 공정 없는 저동력으로 기존 대비 85% 낮은 유지 관리비 ▲기존 장치 대비 최대 12배 설치 면적 축소 등이 가능해진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 본격화

클라우드 원팀, 정기 협의체 개최

KT는 클라우드 원팀 멤버사들과 주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클라우드 원팀은 ▲ECO상생지원단 ▲산업혁신분과 ▲솔루션혁신분과 ▲기술·R&D 혁신분과로 운영 중이다.

KT는 서울 광화문 KT East 사옥에서 제 1차 클라우드 원팀 정기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 IT부문장 윤동식 전무 등 멤버사 주요 관계자 60명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분과에서 발굴한 과제가 소개됐고, 각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방안과 역할이 논의됐다. 특히 솔루션혁신분과는 이날 비대면, 보안, 업무 협업툴, DaaS 등의 9개 과제를 발굴해 각 과제 로드맵을 공유했다. 솔루션 혁신분과는 기업 개별과제와 공동과제 발굴을 해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혁신분과는 기술과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시장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에코상생지원단은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술·R&D분과는 각 대학교별로 아카데미 특화 프로그램 기반으로 전문 인재 육성에 협업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KT

빅데이터·분석 솔루션 할인

KT는 교육 및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와 분석 솔루션을 2월 한달간 최대 90% 할인해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판매 상품은 코로나 전후의 경제, 문화, 사회적 여파를 분석할 수 있는 관광·상권·생활인구 데이터와, KT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라이선스다.

KT 통신 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러한 빅데이터는 KT의 분석 솔루션을 통해 관광지 정보, 지역상권 카드 사용정보, 이동형태 정보, 지역별 시정 정보, 관심사 등과 함께 결합돼 의미미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네이버지도·카카오T서 기차 예매 가능

도착시간에 맞춰 근처 음식점 추천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차 노선 검색과 예매를 지원하며, 예매와 도착 시간에 맞춰 근처의 음식점까지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의 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지도 앱과 네이버 검색, 카카오 T 앱에서 기차 운행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예매까지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도 앱에 신설된 ‘기차 조회/예매’ 탭을 누르면 기차 시간표를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 창에서도 역사 이름이나 ‘기차 시간표’, ‘기차 예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동일한 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ITX-청춘 ▲관광열차가 대상이다.

네이버는 “기차는 전국적으로 다양

한 노선과 환승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에서 경제적인 경로를 쉽게 파악하고 예매까지 가능한 윈스톱 기능에 대한 이용자 니즈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 지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중소상공인(SME)의 가게 등 다양한 지역 사업자의 업체 정보, 숨은 맛집 정보 등 국내 최대 수준의 지역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향후 기차 정보 제공 기능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이용자가 부산 여행에 앞서 맛집 탐방 계획을 짰다면, 네이버 지도에 탑재된 스마트어라운드를 활용해 원하는 음식점을 찾아보면서 부산행 기차 예매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주문’으로 음식을 미리 주문하고 픽업해 기차에 탑승할 수도 있다. 우승기 책임리더는 “향후에는 도착 시간에 맞춰 도착지 근처의 맛집을 알리므로 추천해주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폴크스바겐 더 뉴 티록 출시... SUV 라인업 완성

폴크스바겐이 SUV 풀 라인업을 완성하며 수입차 대중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에 컴팩트 SUV 더 뉴 티록을 출시한다.

티록은 전세계적으로 50만대 가까이 판매된 인기 모델로, 국내에는 처음 판매된다. ‘수입차 시장 대중화’를 위한 전략 모델로, 티구안과 투아렉과 함께 폴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티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한다. 트림별로 3599만원부터 4033만원으로 독일 현지보다 최대

1500만원 저렴하다는 게 폴크스바겐코리아 설명이다.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과워트레인은 2.0 TDI 엔진에 7단 DSG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4.7kg.m를 낸다. 연비는 복합 15.1km/L다.

편의 사양도 다수 탑재했다. 전 트림에 긴급제동시스템과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등을 도입했고, 프리미엄 모델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